

아침論壇



柳錫春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는 대부분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있다. 아파트 내부를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고치는 일을 주로 한다. 문이나 창을 새로 달기도 하고 욕실이나 부엌 공간을 재배치하여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근본적인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보수·진보의 개혁 방법론

혹시 거주자가 요구하는 공간의 재배치가 아파트의 내력 벽이나 기둥을 건드릴 경우엔 어려서러한 이유로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받을 뻔다.

만약 거주자의 입장에서 아파트의 주어

진 구조와 조건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조와 조건을 가진 아파트를 찾아 이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재개발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완전히 새로 짓는 일이다. 전자는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이고, 후자는 집단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아파트 거주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세 가지 가능한 선택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 즉 '리모델링' '이사' '재건

축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에만 또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한 선택이 된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느 것이 항상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는 식의 획일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주어진 여건과 사정에 따라 선택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다. 기본적인 구조는 마음에 드는데 단지 아파트가 낡은 것이 문제라면 리모델링이 최선이다. 근본적인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 비용을 치르게 되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개혁이라는 문제에 '이사'라는 개인적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는 곧 국적을 옮기는 '이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민은 개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대안이지만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는 불가능한 대안이다.

선택에 따른 비용 생각해야

그렇다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선택만이 남는다.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와 조건을 도저히 근본에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론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재건축이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을 고치는 일이다.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이념을 만들고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다. 만약 현재의 기본 구조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고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리모델링'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남겨 놓고 대신 내부의 낡은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연세대 교수·사회학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축'이다.

각각의 선택은 물론 상응하는 장단점을 가진다. 리모델링은 근본적인 변화를 얻지 못하는 대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변화를 쉽게 얻는다. 이사와 재건축은 근본적인 변화를 얻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로의 이사라는 선택은 대부분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치러야 한다. 또한 이사는 가까운 이웃이나 단골이 제공하는 축적된 신용을 모두 잃고 대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이가 있다면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한다. 한편 재건

다면 이사 혹은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이사는 개인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집단 차원의 동의가 없으면 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사와 재건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들어간다.

요즘은 '보수와 진보'로 이야기되고 있는 개혁의 방법론에 이 틀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마치 아파트 거주자가 느끼는 불편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라 치러야 할 비용과의 대차대조를 통해 '리모델링'이나 '이사' 혹은 '재건축'이라는 선택을 하듯이, 우리 국민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떤 수준이며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하면 어